

【민간 아이디어를 살린 마을 만들기】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전일, 오카야마시 키타구 텐진초의 시 소유지 구 고락관 중고등학교 (텐진 학교) 오테터 (약 4,900 m<sup>2</sup>)의 매각과 활용에 관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산요 방송 주식회사가 결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토지는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현립 미술관에 인접한 문화 예술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중심 시가지로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 소유지입니다.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는 매각 가격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본 구체적인 내용도 중시해, 청내 심사위원회의 채점과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각각 통합하여 대조한 결과 모두 산요 방송의 제안사업에 좋은 평가를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심사의 관점】

- (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활기 창출
- (2) 문화의 창조와 발신 등 문화·예술 구역으로서의 매력 향상
- (3) 주변과의 경관 조화

산요방송의 제안 사업은 「오카야마시의 매력 만들기에 대응하는 방송국」을 컨셉으로 방송국 본래의 정보 발신과 방송 문화라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열린 방송을 목표로 함으로써 노(일본전통 연극)와 료겐(일본전통 희극), 음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약 200명 수용 가능한

홀을 비롯해 카페와 레스토랑, 광장 등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가쿠(일본전통 예능) 공연과 오모테초 상점가와 연계한 지역 행사의 고조, 향토 위인의 현창, 전람회의 개최 등에 의한 「활기 창출」 오리엔트 미술관이나 현립 미술관 등과 이벤트 공동 개최 등을 통한 「문화 창조와 발신」, 양쪽 미술관과 높이를 맞춘 차분한 거리 풍경을 형성하는 「경관의 조화」 등 다방면으로 배려한 계획이며 종합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근소한 차이로 차점자가 된 공익재단법인 이시카와 문화진흥 재단을 대표로 하는 그룹의 제안 사업은 오카야마 예술 교류 등으로 축적된 실적을 살려 향토에 공헌하고 세계에서 꽃피우는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예술과 교류의 광장, 집객 시설, 숙박 시설, 지역 집회소 기능 등을 결합한 매우 야심 찬 내용이었고 아사노산업 주식회사의 제안 사업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본사 사무실을 정비함과 동시에 교류 시설과 전시실, 관광 버스 정류장 주차장을 설치, 재해시에는 가스 공급도 실시하는 본업을 살린 탄탄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계획은 우선 협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함께 연구를 거듭한 훌륭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카와 문화 진흥 재단을 대표로 하는 그룹의 계획에는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저 자신도 앞으로의 전개를 크게 기대함과 동시에 꼭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요방송에 있어서는 이 토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시민에게 사랑받고 마을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전개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을 해준 모든 사업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